

통권 제 183호

강남. 라 00943

2563
2019

1

살다보면
우리 동네 이야기



설화속으로
염불공덕



결망에 담긴 이야기
바로 여기 있네!

위드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

 불교총지중

진흙속의 연꽃같이

검은 데는 흰 것이 더 드러나듯이 세상이 악할 수록
선의 가치는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세상이 악하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나만 행해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흙에서 연꽃이 피지 않느냐.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불교총지중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계울이야기 _ 12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1)
_ 법경 정사



십선성취 _ 30

위로慰勞
_ 덕현 전수



디딤돌 _ 56

시간을 선물합니다
_ 지현 전수

- 04 불교이야기
- 10 마중물
- 12 계울이야기
- 18 살다보면
- 24 향유
- 28 산책
- 30 십선성취
- 34 마음의 등불
- 38 새이야기
- 42 법향기
- 48 씨앗한알
- 52 설화속으로
- 56 디딤돌
- 58 차향기
- 62 독자기고1
- 64 독자기고2
- 66 로드를 찾아서
- 72 걸망에 담긴 이야기
- 74 뜻 바꾸기
- 76 되짚어보기
-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 사성제와 팔정도의 관계 _ 화령 정사
-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_ 법정 스님
-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1) _ 법경 정사
- 우리 동네 이야기 _ 이옥경
- 큰 파도 밑에 큰 물고기 _ 강동현
- 창가에서 _ 김대근
- 위로慰勞 _ 덕현 전수
- 初心을 지킨다면 _ 이익
- 원앙 _ 정옥식
- 부처님이 나에게 특별히 내려주신 귀중한 가피 _ 김홍조
- '좋은 일' 혹은 '더 좋은 일'만 있다 _ 법상 스님
- 염불 공덕 _ 보현 전수
- 시간을 선물합니다 _ 지현 전수
- 계절에 어울리며 계절 따라 마시기 좋은 차 2 _ 김정애
- 팔순을 맞이한 어머니께! _ 조나현
- 엄마와 딸들의 일본여행 _ 여순애
-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3) _ 우연
- 바로 여기 있네! _ 법일 정사
- 만다라曼荼羅 _ 김재동
- 남굴북지南樞北柢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면 바른생각과 판단이 보인다.

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때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아서 그 일을 했고, 좋아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 일과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일과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일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시가 꽃이 되다」

사성제와 팔정도의 관계

화령 정사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팔정도는 사성제의 도제에 관한 세부적 실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에서 도제는 열반에 이르는 실천방법을 설한 것이고 그것이 팔정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를 완전히 실천하게 되면 열반에 들어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성제의 도제는 중도의 실천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팔정도는 이러한 중도의 실천을 여덟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팔정도의 각 항목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팔정도는 중도라는 하나의 수행방법을 여덟 가지 측면에서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의 각각의 실천 덕목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서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정도의 각 항목에 대한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정견과 마지막의 정정이 특히 중요시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견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모든 실천 덕목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고, 또 정정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통 불교의 실천을 계·정·혜의 세 가지 방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삼학이라고 하는데, 즉, 언행을 바르게 가지는 계에서 바른 마음가짐인 정이 나오고 여기에서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학의 차원에서 팔정도를 계·정·혜에 대비해 보면, 정견과 정사유는 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어와 정업, 정명은 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념과 정정은 정에 해당하며, 정정진은 계·정·혜 모두에 공통되는 실천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팔정도는 이와 같이 불교 실천의 근간이 되는 계·정·혜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는 불교 실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성제에 삼전십이행상(三轉十二行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에게 사성제를 설하시고 나서 이 사성제의 각각에 대해서 시전(示轉), 권전(勸轉), 증전(證轉)의 삼단계로 실천할 것을 설하셨습니다.

우선 고성제에 대한 삼전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제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가르침에 대하여 나에게 눈이 생기고, 지가 생기고, 혜가 생기고, 명이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제란 이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고제의 내용을 나타내 보인 것이기 때문에 시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제를 완전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에 의하여 “나에게 눈이 생기고, 지가 생기고, 혜가 생기고, 명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겼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고제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증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제가 이리이러한 것임을 완전하게 알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고제에 대한 깨달음을 증득했다는 것으로 증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성제에 대한 삼전도 마찬가지로 형식입니다. 즉, 시전은 ‘집제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타내 보인 것이 시전입니다. 집제는 끊어야 하는 것이라고 권하는 것이 권전입니다. 이것은 집제의 시전에서 나타난 갈애 등의 번뇌를 끊을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증전은 집제를 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성제의 삼전에서 시전은 ‘멸제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멸제는 현증(顯證)해야 한다.’고 권하는 것이 권전입니다. 현증한다는 것은 고의 멸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멸제에서 보여준 열반을 실현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즉,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증전은 멸제를 이미 현증했다, 증득했다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증득했다는 뜻입니다.

도성제의 삼전에서 시전은 ‘이것이 도제이다.’라는 도제의 내용을 보이는 것입니다. 권전은 도제는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정도를 반복하여 배우고 실천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증전은 도제를 닦고 익히는 것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고성제뿐만 아니라 집·멸·도성제의 각 제에도 마찬가지로 형식으로 시전, 권전, 증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모두 ‘나에게 눈이 생기고, 지가 생기고, 혜가 생기고, 명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눈이 생기고, 지가 생기고, 혜가 생기고, 명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겼다.’고 하는 안(眼), 지(智), 명(明), 각(覺)을 사행상(四行相)으로 하여, 삼전 각각에 이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십이행상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사제 각각에 십이행상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성제 각각에 삼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십이행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사성제의 각각에 대하여 시전, 권전, 증전이 있기 때문에 합하면 열두 가지가 되는 데, 이것을 사성제의 ‘삼전십이행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것을 ‘삼전십이행법륜(三轉十二行法輪)’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요약하여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전이라는 것은 한 마디

로 '고·집·멸·도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권전이라는 것은 '고는 알아야 하고, 집은 끊어야 하며, 멸은 증득해야 하며, 도는 닦아야 한다.'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증전이라는 것은 고를 바로 알고, 집을 끊으며, 멸을 증득하고, 도를 완전히 닦는 것을 보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밝힌 것을 말합니다.

삼전은 사성제의 각각에 대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고 증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제만 하더라도 시전에서는 '고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고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단순한 지식으로서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고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것을 권전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을 통하여 고를 없애는 것이 증전입니다.

집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전을 통하여 고를 생기게 하는 원인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를 생기게 하는 원인을 실제로 없애도록 해야 하는 것이 권전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실제로 완전하게 없애는 것이 집제의 증전입니다.

이와 같이 멸제와 도제에 대해서도 삼전은 적용이 됩니다. 멸제와 도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으면,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증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제의 각각은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실천에 의하여 사제가 완성되는 것이며, 깨달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즉, 사성제의 각각에 대해 이러한 삼전으로서 불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다섯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비구들이여, 이 사제의 삼전십이행상을 진실 그대로 알지 못하면, 위없는 지혜를 얻고 등정각이 되지 못한다. 나는 이 삼전십이행상을 진실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위없는 지혜를 얻고 등정각^{正覺}이 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성제는 하나의 이상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팔정도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덕목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물건과 인연을 맺는다. 물건 없이 우리들의 일상 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도 물건과의 상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면적인 욕구가 물건과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사람들은 느긋한 기지개를 켜다. 동시에 우리들이 겪는 어떤 성질의 고통은 이 물건으로 인해서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중에도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물건 자체에서보다도 그것에 대한 소유 관념 때문이다.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도둑맞았거나 잃어 버렸을 때 그는 괴로워한다. 소유 관념이란 게 얼마나 지독한 집착인가를 비로소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물건을 잃으면 마음까지 잃는 이중의 손해를 치르게 된다. 이런 경우 집착의 얽힘에서 벗어나 한 생각 돌이키는 회심^{回心}의 작업은 정신위생상 마땅히 있음직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내 소유란 있을 수 없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물건이 아닌 바에야 내 것이란 없다.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내게 왔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가 버린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실체도 없는데 그밖에 내 소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저 한동안 내가 맡아 있을 뿐이다.

울타리가 없는 산골의 절에서는 가끔 도둑을 맞는다. 어느날 외판 암자에 '밤손님'이 내방했다. 밤잠이 없는 노스님이 정랑엘 다녀오다가 뒤꼍에서 인기척을 들었다. 웬 사람이 지게에 짐을 지워 놓고 일어나려다 말고 일어나려다 말고 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었다. 뒤주에서 쌀을 한가마 잔뜩 퍼내긴 했지만 힘이 부쳐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스님은 지게 뒤로 돌아가 도둑이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지그시 밀어 주었다. 겨우 일어난 도둑이 힐끗 돌아보았다.

“아무 소리 말고 지고 내려가게.”

노스님은 밤손님에게 나직이 타일렀다.

이튿날 아침, 스님들은 간밤에 도둑이 들었다고 야단이였다. 그러나 노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에게는 잃어 버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는 이 말은 선가^{禪家}에서 차원을 달리해 쓰이지만 물건에 대한 소유 관념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그후로 그 밤손님은 암자의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

-「무소유」-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1)

법경 정사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구족계

구족계(具足戒)는 20세 이상의 성인이 출가하여 정식으로 승려가 될 때 받는 계율을 말한다. 그래서 구족계를 받았다 함은 곧 출가 수행자로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족계를 받으면 정식 승려가 되는 것이다. 비구는 250계를 받고, 비구니는 348계를 받는다.

율장에서는 정식 승려가 된 사람이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율로 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4가지이다. 출가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은 구족계를 받은 출가 수행자가 바른 행실을 하지 못하여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출가자와 비 출가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요 출가자의 특권이나 권위의식을 내세우고자 함도 아니다.

출가자가 바른 처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조신(儆心)하게 행동하고 말을 삼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금계(禁戒)가 만들어진 것이다. 출가수행자의 근신(謹身)과 신언(慎言)에 대한 계율이라고 보면 된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계율을 어기면 바일제법에 해당된다. 바일제법은 범계(犯戒)를 하였을 때 참회의 벌칙을 받게 되는 계율이다.

그 첫 번째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자퇴 기한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미수구계인동숙과한계(未受具戒人同宿過限戒)라 한다.

두 번째는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경을 외우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미수구계인동송계(未受具戒人同誦戒)라 한다.



세 번째는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다른 출가자의 치부恥部를 들춰내어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사실인양 자기가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 번째를 미수구계인설추죄계未受具戒人說羸戒라 하고, 네 번째를 싹득도향미구자설계實得道向未具者說戒라 한다.

미수구계인동숙과한계未受具戒人同宿過限戒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자되 기한을 넘기지 말라는 미수구계인동숙과한계未受具戒人同宿過限戒는 다음과 같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율장의 일부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광야성에 계실 때에 6군비구가 여러 재가자들과 함께 강당 가운데서 자고 있었다. 그때 6군비구 가운데 한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잠을 자다가 몸부림을 치며 몸을 뒤치기는 바람에 남자의 생식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다른 비구들이 이를 보고 즉시 옷을 덮어 주었는데, 다시 몸부림을 치니 생식기가 크게 발기되어 드러나기를 수차례 거듭하게 되었다. 함께 잠자던 재가자들이 이를 목격하고는 크게 웃고 희롱하니 잠을 자던 다른 비구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깨서 보고는 몹시 부끄러워하였다. 이를 인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만약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자면 바일제법이니라. 다만 함께 자되 이틀 밤을 자고 사흘 밤을 지내면 바일제법이니라.”

출가자의 위의를 말하고 있다. 자는 모습도 추해서는 안 되지만 생식기를 드러내고 자는 것은 출가수행자의 위의威儀는 땅에 떨어지고 만다. 위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수행자는 모습마저도 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중으로부터 비난의 대상,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출가자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자야 할 때도 있다. 그때는 이틀밤까지만 자라는 것이다. 너무 길게 함께 자지 말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다. 부득이 하게 여러 날을 함께 자야 할 경우가 있을 때는 특별히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출가수행자이기 때문이다. 출가수행자는 사문沙門의 도와 행을 지켜야 하고, 바른 행과 청정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출가수행자의 위의威儀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계율을 제정하실 때마다 “그것은 바른 행[正行]이 아니다. 깨끗한 행[淨行]도 아니요, 사문이 행할 바가 아니다.”라고 늘 말씀하신다. 부처님은 가르침에 있어서 늘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 취지를 잘 알아야 한다. 그것이 불교공부와 불교수행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문·사·수聞·思·修를 잊어서는 안 된다.



미수구계인동송계未受具戒人同誦戒

두 번째,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경을 외우지 말라는 미수구계인동송계未受具戒人同誦戒는 다음과 같은 인연에서 제정되었다. 율장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광야성에 계실 때에 6군비구들이 재가자들과 함께 강당에서 경을 외우는데 얼마나 소리가 크고 높은 지 바라문들의 글 읽는 소리와 다름이 없고 음^{ᄃᆞ}이 맞지 않아 오히려 시끄럽고 요란스럽기만 하였으므로, 점잖은 다른 비구들이 이를 듣고 부처님께 고하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어떤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경을 외우면 바일제법이니라.”

오늘날 이를 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출가 수행자와 재가자가 함께 모여 법회를 보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은 출가 수행자는 염불이나 염송하는 소리를 운율에 맞게 여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이 따라 할 수 없는 음을 내거나 독특하게 염불하거나 혼자서 이상한 음을 내고 있다면, 대중의 비난이 있게 되고 염불이나 염송소리에서 오는 감응^{ᄃᆞ}은 반으로 줄어들고 만다.

법회에서 염송의 음과 운율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소리가 대중과 함께 맞는지를 점검하고, 스스로 가다듬는 연습이 있어야 한다. 득음^{ᄃᆞ}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종단에서도 음^{ᄃᆞ}과 운율^{ᄃᆞ}의 표본을 마련하기 위해 연마^{ᄃᆞ} 중이다. ↓



다음 호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도 떼는 등 마는 등 바닷가로 나간다. 걸어서 10여 분. 서두를 일이 없으니 느릿느릿, 하늘도 쳐다보고 초록빛이 가득한 밭도 넘겨다보고 길가에 소복소복 피어난 노란 문주란 꽃도 구경하면서 한껏 게으름을 부린다.

검은 현무암의 발치에서 시작된 바다는 맑고 투명하다. 바위를 적시는 파도에 발을 담그고 있던 수십 마리의 갈매기 떼가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오른다. 겨울 바다는 고요하다. 참으로 고요해서, 멀리 바다를 가르는 작은 어선이나, 어쩌다 드문드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조차 정물처럼 느껴진다. 평화롭다. 평화롭다는 말 외에는 달리할 말이 없다.

제주, 하도리에서 맞는 열여섯 번째 아침은 또 그렇게 시작된다. 우리 동네(이곳에 온 지 이틀 만에 나는 이 정겨운 마을을 우리 동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아늑한 모습과 다르지 않게 어제와 그저께도, 그 그저께...도 조용했고, 오늘도 여전히 조용하다. 어쩌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에 감도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그들의 순한 속내 같아서 참 좋다. 게다가 내가 머무는 소박한 농가 주택의 안온함이라니. 나는 나의 탁월한 선택에 짹짹 박수를 보낸다. 그만한 오만은 부러도 돼, 하면서 어깨까지 으쓱하며.

누가 들으면 팔자 좋은 여인네의 매화타령이라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건 내가 내게 주는 상이다. 평생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내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만한 상쯤 받아도 괜찮다고, 난생처음 토닥토닥 자신의 어깨를 다독여 주는 참이다.

지난해 가을, 내 인생에도 전환점이 생겼다. 나는 쉽표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마침표라고 이야기하는 일,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애정을 쏟았던 터라 일에 대해서만은 시원함보다 섭섭함이 더 컸지만, 자리에 대한 미련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아쉬워했으니 떠나오는 발걸음도 가벼웠다.

놀랍게도 나는 설레고 있었다.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것 같은 설렘 속에서 나는 잘 놀아보리라, 잘 놀아보자, 자신에게 파이팅을 외쳐 주었다. 돌아보면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만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던 순간순간을 견디고 이겨낸 것처럼,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용기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보다 좋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빛나는 것들이 더 많았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거기에 플러스알파, 내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긍정의 힘과 성실, 열정이

라는 훌륭한 자산이 있다. 큰 욕심이 없으니 걱정할 게 무언가. 절망하다니, 또 다른 가능성이 가득 열려 있는 이 새로운 시간 앞에서. 두려워하다니, 또 다른 성취를 꿈꿀 수 있는 이 새로운 길 앞에서.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팔만대장경(고려 고종 23년부터 38년까지 16년에 걸쳐 완성. 경판^{經板}의 수가 8만 1,258판에 이르며,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의 수많은 경구 중에 '욕심은 만족을 모르는 불가사리이며,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 막연한 설렘 속에, 자칫 넘칠 수도 있는 나의 면면을 경계하라는 말씀처럼 들린다.

그렇다. 불행의 시작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돈도, 사랑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는 먹고 소화하는 일까지도 욕심이 화근이 되지 않던가.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로 터를 다지고, 그 위에다가 누군가의 눈물로 화려한 성을 짓는 사람들..., 인정하기는 싫지만, 아직도 참 많은 세상이 아니던가. 하지만 그것들은 달콤하다. 쉽게 길들고,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 '사람의 괴로움은 끝없는 욕심에 있다. 자기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면 마음은 항상 즐겁다(채근담)',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탈무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 열린다(에피쿠로스)'와 같은 수많은 명언도 그래서 생겨났을 터. 예나 지금이

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이번 여행에서는 한껏 버리고, 비우고, 늦춰 볼 참이다. 한 보름, 그렇게 살아보니 또 그렇게 살아진다. 100m 곧은 트랙은 젊고 재주 있는 선수들에게 내어주고 나는 구불구불, 우리 동네 밭담 길처럼 정답게, 낮게 엎드려 피는 때늦은 들국화처럼 소박하게, 그 모습, 그 몸짓을 배워야겠다.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4km 남짓 떨어진 세화리 장날이다. 바쁠 일도 없고, 딱히 할 것도 없으니 장터까지 설렁설렁 걸어보기로 한다. 멀리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풍력발전기가 보이고, 마을 앞 방파제 끝에 마주 보고 선 하얀 등대와 빨간 등대가 만들어내는 멋진 풍광에 이끌려 장 구경은 잠시 뒷전이 된다.

그러면 또 어찌랴. 볼 때마다 물색이 달라지고, 풍경이 달라지는 바다가 거기 있는데. 주홍색 테왁 망사리 옆에서 노란 오리발을 차고 물 질하는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들릴까, 걸음을 멈추고 오래도록 귀를 기울여 보는 여유가 생겼는데. 돌, 바람, 여자의 섬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쓰는' 우리들의 어머니 제주 해녀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맑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고기 떼를 마다하고, 입질도 없는 곳에 낚시

대를 드리우고 있는 낚시꾼들을 보면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가웃거리면서도 우리네 인생처럼,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빨강, 노랑, 파랑이 아니라 제주바다색, 제주감귤색, 제주한라산색, 제주현무암색, 제주송이색, 제주유채꽃색, 제주갈옷색, 제주흙빛색, 제주오름색, 제주억새색처럼 정말 아름다운 색깔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직접 느끼게 됐는데.

그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길 앞에서 나는 매일 새로워진다. 느린 걸음으로, 가벼워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새삼스레, 참 아름답다. ♣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선배가 자기 방으로 나를 불러서 누구한테 어떤 말을 했냐고 물었다. 나는 기가 막히고 좀 당황했지만 담담하게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봐 왔으면 내가 그런 류의 말을 안 했다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하고 에둘러 서운함을 표현하였다. 대충 누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지 알 것도 같았는데 선배 방에서 나오는데 슬그머니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저런 말이 흘러 나왔는지 생각해 보았다. 내가 원래는 잘 참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참지 못하고 탐

문 수사를 하고야 말았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었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 아주 큰 판이 벌어진 것이다.

내가 헛똑똑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사태는 조금 달라졌을 것이고 내 자존심은 지켜졌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 내가 안 한 말도 늘어나고 내 평판까지 이상해졌다. 선배가 나를 따로 불러서 내 평판이 어떻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이런 말들로 내 속을 긁어 놓고 내가 얼굴이라도 붉어지려고 하면 다독거리고 참으라고 한 소리를 해댔다. 내가 실체가 없는 선배의 말에 깨춤을 쳤다.

불공을 시작하면 항상 범문이 들어오고 또, 그걸 잘 넘기고 잘 해결하고 가쁜 마음이 되곤 했는데 이 불공을 하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거다. 일이 되려고 그러는 거라고 마음을 다독이면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지니 마음을 닫고 입을 닫고 불공하는 것에 전력을 다했다. “마음을 비우자. 나는 아무에게도 해코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불공을 했다. 마음이 어지러워서 염주가 툭툭 손에서 놓아지고 옴마니반메훔이 또 박또박 나오지도 않았다. 속으로 욕도 좀 했다. ‘아니 내가 뭘 잘 못했다고 이러느냐?’고 속을 좀 끓이기도 했다.

출근하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이 싫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확 때려 치고 놀아볼까.’ 싶었다. 그래도 불공은 안 놓고 계속했다. 사

실 그때는 법문이라고 생각도 못했다. 한 일주일을 불공하는데 염주를 뺏기듯이 손에서 놓아지고 마음도 어지럽더니 다른 일주일이 시작되었을 때는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했다.

뭐 손오공이 놀아도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고 하더니 나도 선배의 큰 놀이터에서 놀았던 것이 눈에 보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선배의 제안으로 나는 아주 괜찮은 일을 같이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사업성도 있을 것 같고 타당성도 있어서 서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될 일이었는데 다음날 이런 사달이 난 거였다.

선배가 나를 빼고 싶어서 일을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내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일을 더 크게 만드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봤다. ‘내가 아무데서나 막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쯤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니 너랑은 이 프로젝트를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나를 뺄 생각이었던 것이다. 뭐 선배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상황을 보니 그렇다는 거다. 내가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지만 또 억울한 사정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도 선배는 잘 몰랐겠지. 어찌 되었건 나는 출근할 때마다 친했지만 꺾끄러운 선배를 만난다.

인사도 가볍게 하고 전처럼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기가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엄청 말하고 다닌다. 나는 자기가 그 말을 퍼트렸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서운하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었지만, 대신에 선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부처님만 믿습니다.” 이런 참회도 하고, 내가 억울한 것을 못 참는 거를 고치

라는 법문 같기도 했다. ‘억울하다.’하는 것도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나는 고집을 부렸다. 이런 일로 나는 또 많이 알아챘다. 내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도 눈에 보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아무 일도 아니고 우리 엄마 보살님 말씀처럼 “인과법을 아는 사람이 좀 저줘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이 되기도 한다. 아직 불공이 많이 남았다. 나는 불공을 멈추지 않고 할 것이다.

예전에 내 스승님이 “큰 파도 밑에 큰 물고기 산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큰 법문 건너가면 큰 사람 되는 것이라고 소견이 좁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자책하고 코 빼고 있을 시간도 아까워서 불공하고 있다. 나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스승님들한테도 가서 묻고 언니한테도 가서 물었더니 내가 불의를 못 참고 억울한 것을 못 참아서 이런 사달이 난 거니 참회를 더 많이 하라고 했다. 그래서 참회를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더 좋다.

참회를 하다보니 진짜로 마음이 굳건해졌다. 출근을 할 때도 이제는 괜찮다. 속상한 말을 아직도 나한테 하는 선배한테도 마음으로 내가 참회를 한다.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는데도 나는 참회를 한다. 기도를 해준다. 전에는 이런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다. 그래서 순종하게 된다. 좀 더디고 일을 다 겪고 나서야 알게 되는 단점이 나한테는 있지만 다음에는 안 그러면 되니까, 잘난 척을 그만하고 불공하고 있다. 이제는 염주가 손에 착착 달라 붙는다. 옴마니반메흠도 또박또박하다. 어찌지? 나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평온하다. ♣

겨울비가 내립니다.
눈은 창밖을 내다 보지만
생각은 저 멀리에서 떨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이
내리는 비처럼
차갑게 나를 지나 갑니다.

겨울비가 내립니다.
바람이라도 걷어낸 비가
조용히 내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아픈 마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테니까요.



위로 慰勞

덕현 전수
법천사 전수

위로^{慰勞}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 주려는 따뜻한 말이나 행위를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른스러워지는 것일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른스럽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른이란 말을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른스럽다…….

지금 나는 어른스러운가.
그다지…….



저는 요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걱정거리도 많아지고 기억력은 점점 나빠져서 자꾸 잊어버려서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가 입력되면 다른 한 가지를 잊어먹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 처진 어깨를 다독여 주는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많이 지쳐 있을 때,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지내. 자신감을 가져.'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툭 던져준다면 그 사람은 분명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가요?
우리에게 부처님의 소리 없는 응원도 필요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정겨운 인사마저 아쉽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동료에게서 '넌 잘하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네.'라는 작은 다독임, 가족들로부터 '오늘 힘들었지. 다 같이 힘내자.'라는 포근하고 따뜻한 말…….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은가요?
저는 가끔 오랜 친구와 통화를 합니다. 이 친구는 1년에 한 번 통화해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한 친구입니다. 편해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주고 함께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 읽곤 합니다. 익숙한 책이어서 더 없이 마음이 편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힐링이 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 읽었던 책은 많이 낡고 헤어졌지만 묵힌 책의 냄새가 싫지 않습니다.

접혀 있던 곳을 다시 펴면 책갈피 속에서 그때의 생각과 느낌이 떠오릅니다. 주로 동화책인데 '키다리 아저씨', '빨강 머리 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등을 읽다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정물^{無情物}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서도 있고, 영화, 운동, 산책, 글쓰기 등에서도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을 따뜻하고 예쁘게 하는 사람, 상대방의 말에 호응을 잘 해 주는 그런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따뜻한 말로 상대방을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따뜻하게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수행이 부족한 탓입니다. 어느 책에서 수행의 궁극은 이타^{利他}라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 혹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위로 받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위로하다 보면, 자신이 먼저 위로가 됩니다.

서로를 위로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

初心을 지킨다면

이익(李瀼)
1681 - 1763
조선 후기의 실학자



流水喧如怒	유수환여노	흐르는 물은 노한 듯 시끄럽고
高山嘿似嗔	고산묵사진	높은 산은 화난 듯 말이 없네
兩君今日意	양군금일의	저 둘이 오늘 보이는 행태는
嫌我向紅塵	혐아향홍진	속세로 가는 내가 싫어서이리

- 『동시도습(東詩蹈襲)』, 『성호사설(星湖僿說)』 제28권

고려高麗 때의 문사文士인 위원개魏元凱의 시이다.

고종 때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한림에 이르렀고, 뒤에 출가하여 범명을 충지沖止라고 하였다. 시호는 원감圓鑑이다.

한 때 중이 되었다가 어머니의 권유에 의해 환속하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다시 승려가 되었다고 한다.

이 시는 아마도 다시 환속할 때의 심사를 읊은 듯하다.

물이나 산이 무슨 감정을 표현하라.

그들은 평시와 다를 것이 없건만,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게 비취지는 것이리라.

조선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도 벼슬길에 나가면서

靜看山水意 정간산수의 저들이 왜 저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應笑往來頻 응소왕래빈 응당 왕래가 잦다고 비웃는 것이리라

라는 비슷한 시를 썼다가, 성호^{星湖} 이익^{李穡} 선생으로부터 표절을 했다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심사는 다를 것이 없었으리라.

그리고 보면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산림을 중시하고 벼슬길을 경시해 왔다.

북산^{北山}에 은거하며 덕행으로 이름을 얻었던 주옹^{周暉}이라는 사람이 황제의 부름으로 나가 벼슬하다가 여의치 않아 다시 북산으로 돌아가려 하였을 때, 그와 동지였던 공치규^{孔稚圭}라는 사람이 산^山의 뜻에 가탁해서 거절하는 글을 지어 인구에 회자되었을 정도였으니.

물론, 당^唐나라 승려 영철^{靈澈}이

相逢盡道休官去 상봉진도휴관거
 林下何曾見一人 임하하증견일인

만나는 사람마다 벼슬 버리고 돌아간다 하는데
 산림에선 은거하는 사람 하나도 못 보았네

라고 한 걸 보면, 그런 마음이 전적으로 진심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진심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어떤 계기로, 어떤 목적으로 벼슬하러 갔는가.’일 것이다.

이 시의 저자처럼 부모의 권유 때문에 마지 못해 벼슬하기도 하고,

是處塵勞皆可息 시처진로개가식
 時淸終未忍辭官 시청종미인사관

이곳은 세상 고뇌 모두 잊을 수 있는 데지만
 시대가 맑아 끝내 차마 벼슬을 버리지 못 하겠네

라고 노래한 염계^{諫溪} 주돈이^{周敦頤}처럼 맑은 세상에서 뜻을 펴기 위해 벼슬하기도 할 것이다. 그들이 벼슬하러 간다는 이유만으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벼슬길은 역시나 험한 곳이다. 이욕과 영화에 몰들어 자칫하면 작게는 자신과 고을을 망치고, 크게는 나라를 망칠 수 있다. 초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옛 사람들이 국화나 송백, 송죽의 절개를 높이 치는 것은 험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만약 벼슬한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고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때가 되어 미련 없이 벼슬을 내놓고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에 있든 문제될 것이 무엇이라.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권경열 고전번역연구소장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단풍 잎이 아직도 달려 있어 가을이라 여기고 싶지만 자연은 이제 가을의 문을 열고 겨울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호수와 강에는 겨울 손님인 겨울 철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먼 거리를 이동해 와서 인지 먹성도 좋지만 몸 치장에도 게을리 않는다. 대부분의 겨울 철새들은 겨울 월동지에서 짝을 찾고 짝짓기를 시작한다. 일처다부의 번식 습성을 가진 몇몇 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새들은 수컷이 화려한 깃을 갖는다. 반면 암컷은 알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천적의 눈에 띄지 않게끔 땅이나 마른 풀잎의 색을 띤 보호색을 지닌다. 번식기 수컷의 깃은 암컷 뿐만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까지 매료시킬 정도이다. 새들의 이러한 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부터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박제 혹은 장신구로 직접 이용되거나 문학이나 그림의 소재처럼 간접적으로도 많

이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려한 깃을 가진 새를 뽑으려면 그중 하나가 원앙이 아닐까 싶다. 화려한 아름다움이 일으킨 소유욕 탓에 이미 중국에서는 약 2000여년 전부터 원앙을 관상용으로 길렀다고 한다. 원앙이 살지 않는 영국에서도 전시와 관상용 목적으로 1745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인위적인 공간에서 탈출한 개체가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다. 야생 개체수만도 1,000여쌍 이상이 된다고 하니 오랜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개체수가 도입되었는지 짐작할만하다. 영국 이외에도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야생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북미대륙에서도 적은 개체수가 살고 있다.

본래 자연계 내에서의 원앙 분포지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이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상업적 거래를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의 포획과 서식지 파괴 그리고 동지 자원의 감소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60,000여마리 안팎인 전 세계 생존개체수는 불과 몇 십년 내에 30%이하로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원앙속^{Aix}에는 두 종만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원앙^{mandarin duck}과 북미지역에 서식하는 미국원앙^{wood duck}이다. 화려한 깃 이외에 이들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나무에 앉을 수 있으며 나무구멍에 번식을 한다는 것이다. 즉 숲에 사는 오리인 셈이다. 따라서 물고기나 곤충을 먹기도 하지만 참나무류 열매인 도토리 즐겨먹는다. 원앙들이 살아가는 숲이 사라지거나 동지를 틀 고목나무의 부재는 이들의 서식과 생존과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원앙은 흔하지 않게 번식하는 텃새이다. '원앙의 숲'으로 알려진 광릉 숲이 이들의 번식지로 가장 유명하다. 그 외에도 오대산이나 점봉산, 설악산 등 전국 대부분의 큰 산 아래 계곡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초 여름날 이들 산을 오르기 직전이나 내려와서 땀을 씻기 위해 계곡 물에 다다르다 '푸드덕' 하고 놀라 날아오르는 원앙들을 본 경험이 더러 있다. 어떤 경우엔 날아오르지 않고 새끼들을 달고 물살을 따라 줄행랑치는 모습도 있었다. 원앙의 번식 철은 대체로 4월 중순부터이다. 겨울철이 지나면 집단생활을 끝내고 계곡부로 들어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생활하면서 둥지로 쓸 만한 텅 빈 고목나무를 찾기 시작한다. 알은 대개 9개~12개정도 낳으며 많게는 14개까지 낳는다. 둥지를 찾고 알을 품고 새끼를 돌보는 모든 육아는 암컷이 전적으로 맡는다. 번식이 끝나고 겨울이 되면 북쪽지방에서 남하한 무리와 무리를 지어 저수지나 큰 하천 주변에서 다시 월동을 하게 된다. 이들의 번식에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은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Dumping Nest'이다. 남의 둥지를 찾아 다니다 알이 있으면 그곳에 자신의 알을 낳고 또 다른 둥지에도 알을 낳는 행동이다. 일종의 번식 기생행동으로 어린 암컷일수록 이러한 행동을 할 빈도가 더 높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 덕에 둥지 하나에 20여개 이상 많게는 40여개의 알이 발견된다고 한다. 본인도 경험이 더러 있지만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적게는 20%, 많게는 70%이상의 둥지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둥지 재료가 부족해서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인공둥지를 많이 설치해 준 지역에서도 Dumping Nest가 많이 발견되므로 둥지의 부족한 것만이 전부가 아닌 듯하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전체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의견도 있고

낮아진다는 의견도 있어 Dumping Nest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볼 때 알이 많이 놓여진 둥지는 포란(抱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알을 품더라도 부화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모든 이들이 알다시피 원앙은 실제 번식생태와 다르게 부부금술이 좋은 조류로 알려져 있다. 부화한 새끼를 대동한 암컷과 수컷이 다시 재회를 하지는 하지만 한 번 맺은 짝과 내년엔 다시 맺을 기약은 없다. 화려한 원앙 수컷의 깃은 다른 새들과 다르게 원색의 다양한 깃을 가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 번째 날개깃이 유독 길게 나있는 것을 보면 비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화려함이나 치장을 위한 쪽으로 발달하였다. 이는 보다 많은 암컷을 원한다는 증거이다. 수컷이 새끼 기르는 일과 부부의 인연에는 관심이 없는 원앙의 본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금술이 좋다고 알려진 데는 중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원앙에 대한 중국어의 명칭인 '우언양(鴈-yan-yang)'이라는 이름 뿐 만 아니라 원앙이 함축한 의미까지 그대로 차용한 탓이 아닌가 싶다. 실제 중국 문화에서는 원앙이 '정절'과 '혼인의 기쁨'의 상징으로 이용되고 있고 문학이나 그림에서도 이러한 상징으로 원앙이 자주 등장하곤 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욕 한 가운데 위치한 공원에 수컷 원앙이 나타나 화제가 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다. 녀석의 하루 하루 생활이 마치 연예인처럼 보도될 만큼 뉴욕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이유는 아마도 녀석의 화려함 때문일 것이다. 이 보도 이후 현장 조사하다 원앙을 보게되면 세계적인 '미'로 거듭난 원앙의 깃을 한 번 더 보게 된다. 대체 어디가 이쁘지? ▲

부처님이 나에게 특별히 내려주신 귀중한 가피

김홍조
관성사 교도



누가 나의 종교를 묻는다면 나는 절에 다닌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자라고 서슴없이 말하기에는 좀 쑥스럽다. 절에 잘 나가지도 않고 솔직히 신심이 그렇게 두터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와의 인연도 오래됐고 온 가족이 절에 다니고 있는데 나만 불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절에 잘 나가지 않는다고 불교에 대해 그렇게 무관심한 것만은 아니다. 꽤나 오래된 일로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우선 염주부터 잡는다. 그리고 육자진언 사경을 쓴다. 습관화 되어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다.

내 생각엔 자격미달이지만 총지종 종령 예하로부터 도신^{道身}이란 범명도 오래전에 받았다. 직장 다닐 땐 법사^{法師}라는 과분한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쯤 되면 좀 겸연쩍긴 하지만 내가 불자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비난 받을 일은 아닐 성 싶기도 하다.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40여 년 전의 일이다. 요즘 직장엔 주말 이틀을 철저히 쉬지만 그땐 일요일도 일 하는 날이 많아 쉬는 일요일은 그야말로 황금과 같은 휴일이었다. 그래서 일요일에 대한 기대는 무지 컸다.

그런데 아내 때문에 이런 황금휴일에 대한 기대가 깨지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늦잠에서 눈을 떠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



았다. 한참 후 어색한 표정으로 나타나는데 외출 차림이었다. 처음엔 급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런데 새벽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하면서는 걱정이 되었다. 젊은 가정주부가 새벽외출이라니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다. 정색을 하고 따져 묻는데도 아내는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려고만 했다. 결국 큰 소리가 나오고 옥신각신 실랑이 끝에 새벽에 집을 비운 기막힌 사연을 듣게 되었다.

아들을 얻기 위해 절에 불공하러 간다는 것이었다. 들릴 듯 말 듯한 한숨과 함께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나직히 말하는 아내가 무척 지쳐보였다. 난 한동안 할말을 잃고 집사람의 고개숙인 애처로운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랬었구나.”

나는 기도로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물론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들을 얻겠다는 그 애절한 새벽불공의 정성에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너나없이 가난했던 그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산아제한이 한창이었지만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의 출산은 여자로서의 의무가 당연히 되던 시절이기도 했다.

딸 셋을 연이어 낳은 아내는 시집이나 친정 그리고 주변으로부터의 눈치를 감당하기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나는 이런 사정을 거의 의식 못하고 무심했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이때부터 아내의 득남을 위한 불공에 적극 지원했고 불교에 많은 관

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었다.

결국 아내의 지극한 정성으로 아들을 낳았다. 아내는 부처님의 은덕이라 굳게 믿고 있었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가끔 40대 중반인 덩치 큰 아들놈이 급한 일만 생기면 집에 모셔놓은 불본존 앞에서 염주를 잡는 걸 보면 “저놈 부처님이 점지해 주신 게 분명한가 보다.”며 혼자 웃곤 한다.

이렇게 부처님과 인연이 이루어진 뒤부터 우리 집안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 단 배”로 모든 일이 막힘없이 승승장구였다.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아내는 집에 있을 때 염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다. 자성일도 서원당 갔다 오자마자 바로 염주를 잡는다. “절에선 뭘하고 또 불공이야.” 핀잔을 줘 봤자 눈 흘김만 되받는다. 식구들이 많다보니 불공할 일도 많은가 보다.

일단 염주를 들면 대화가 불가능하다. 처음엔 답답해 짜증도 났지만 요즘은 수화 아닌 눈짓만으로도 잘 통한다. 이심전심인가 보다.

단독주택에 살 때 3시간 정진 기도 중이라고 벨을 아무리 눌러도 대문을 열어주지 않아 간신히 담을 넘고 들어갔는데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염주만 열심히 굴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 대화는 물론 움직임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요즘은 융통성 있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예전에 유산 받은 부동산을 판 돈으로 주식을 하다 낭패를 본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월급쟁이로선 몇 년을 벌어야 할 큰 돈을 날리고 돈 잃은 것도 뼈 아프지만 아내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다.

어느 날 “여보 그 돈 그만 잊으세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 느닷없이 튀어 나왔다. “신경 쓴다고 그 돈이 다시 돌아오나요? 그 돈 우리와 인연 없는 돈이에요.”라고 하면서 잊으라고 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저 사람 저러다 도가 터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는 건 아닌가?’ 득도의 경지에 이른 듯한 아내의 위압에 난 한 동안 쥐죽은 듯 지냈다.

직장 다닐 때 출장 갔다가 갑자기 눈이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로 급히 돌아와야 할 일이 있었다. 체인도 없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데 대형트럭이 과속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내차가 밀리자 나는 얼떨결에 브레이크를 밟고 말았다. 빙판에서 브레이크는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차는 서너바퀴 제멋대로 돌면서 50m 가량 미끄러졌다. ‘이제 죽는구나’하는 순간 “옴마니반메훔”하는 외마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참 희한한 일이다.

내 차는 오른쪽 가드레일 옆에 진행방향으로 가지런히 서 있고 대형트럭은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차가 몇 바퀴 돌면 50m나 밀렸는데도 굽힌 자국 하나 없고 나도 멀쩡했다.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10여분이나 꼼짝 안 했다. 직장에 도착하는 그 시간 동안 “부처님 감사합니다.”는 말만 되뇌었다.

“그게 다 부처님의 은덕이에요.”

한마디로 운이 참 좋았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살아오는 동안 자주 일어났다. 이런 일들을 아내의 불공의 덕으로 부처님의 보살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 내가 자주하는 말이 하나 생겼다.

“그게 바로 부처님 범문이다!”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 非想 卽見如來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금강경에 나오는 사구계(四句義) 중 하나로 모든 형상이 허망하니 그것을 알게되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불안하거나 괴롭거나 안정이 필요로 할 때 나는 이 부처님 말씀을 되새긴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한없이 편안해진다. 부처님이 나에게 특별히 내려주신 귀중한 가피라 생각한다. ♫



'좋은 일' 혹은 '더 좋은 일'만 있다

범상스님



삶에는 괴로운 일도 즐거운 일도 없다. 다만 '중립적인 어떤 일'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자비) '정신의 지평을 넓혀주기 위해'(지혜) 왔다가 갈 뿐이다. 지혜와 자비의 목적으로 우리 삶 위에 등장하는 중립적인 경험만 있을 뿐이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이 두 가지, 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그러니 모든 일은 고맙고도 감사한 일이며, 좋거나 나쁜 일이 아닌, 크게 보면 모두 좋은 일들 뿐이다. 결국 우리 삶에는 '좋은 일' 혹은 '더 좋은 일'만이 일어난다.

즐거운 일은 '좋은 일'이고, 괴로운 일은 그것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를 깨닫게 되기에 '더 좋은 일'이다. 그러니, 좋고 나쁜 모든 삶의 파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것 외에 우리가 삶에서 더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즐거운 일은 선업을 받는 일이니 내가 지은 것을 받는 것이니 자연스럽고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괴로운 일은 악업을 받는 것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악업을 녹이고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이니 그것은 더 좋은 일이다. 선업을 많이 받게 되면 내 안에 선업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다지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악업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악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매우 좋은 일이다.

내 안에 선업이 +50, 악업이 -50 있다고 해 보자. +20만큼의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곧 내 안의 선업이 +30으로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결국 선악의 비율이 30:50이 되니,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선보다 악업이 더 많아짐을 뜻한다. 그러나 악업을 -20만큼 받게 되면 선업과 악업의 비율은 50:30으로, 결국 나에게선 선업이 더 많아지고, 선업이 주도적으로 내 삶을 가꾸어 가게 된다.

그런데 더 좋은 점은 악업이나 역경을 만나게 되면 그 괴로운 일들을 통해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데 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 보라. 좋은 일을 통해서 보다는 역경과 괴로운 일들을 겪고 닳을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운 일들이 즐거운 일들보다 '더 좋은 일'인지를 알게 해 준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너무나도 좁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에서는 언제나 '좋은 일' 혹은 '더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눈에 역경처럼 보이고, 괴로움처럼 보이는 수많은 역경계가 나타날지라도 지혜로운 이는 그 이면에 펼쳐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좋은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허용해 주고 경험해 준다. 그럼으로써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경이 올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역경을 더 빨리 흘려보낼 수 있게 되고, 더 빨리 깨닫게 된다. 역경이 오는 목적은 그 역경을 통해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여 깨닫는 사람은 역경이 길게 이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역경이 올 때, 외면하고, 회피하고, 원망하며, 거부하는 사람은 그 역경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경은 더욱 더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역경을 통해 깨달을 때까지 역경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자 내 삶 위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실제 자연치유에서도 병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의 마음 자세는 그 병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유무에 있다고 한다. 병을 받아

들이는 사람은 훨씬 빠른 차도와 치유를 보이지만, 병이 왜 하필 내게 왔느냐고 원망하며 거부하는 사람일수록 병은 치유되지 않고 지속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과 '더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 행복할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이고, 괴로울 때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때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의 본질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 아름다운 좋거나 더 좋은 세상, 아름답거나 더 아름다운 세상을 우울해 하지 말고, 판단 분별하지 말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양 변의 경험 모두를 밝은 마음으로 수용하며 살아갈 일이다.

삶은 이처럼 넓은 시선으로 볼 때는 언제나 눈부시게 아름답다. ♪

-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염불 공덕

보현 전수
실보사 전수



신라시대 서라벌 우금리라는 마을엔 불심 강한 ‘보게’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일찍이 과부가 되어 살아가는 나날들이 힘들었지만 아들 장춘을 희망으로 삼아 고이 키우고 있었다.

봄이면 산나물을 캐서 끼니를 때우고 남의 샅바느질과 김매는 품삯으로 근근이 가난한 살림을 이어갈 따름이었다. 인생 자체가 고해라서 근심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지만, 동네 근처에 있는 만장사에 가서 틈틈이 일을 돌보며 항상 관세음보살을 지성으로 불렀다.

그럭저럭 세월은 흘러 외아들 장춘은 어느덧 장가 갈 나이가 되었다.

홀어머니의 고생하시는 모습에 장춘의 마음은 죄송할 따름이었다. 장춘은 이 지독한 가난을 면할 방도를 찾아 이리저리 길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중국 상인이 일꾼을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품삯 또한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를 홀로 두고 위험하고도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이 걱정이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어머니에게 하루라도 빨리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장춘의 결심을 들은 보게는 걱정이 앞섰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들의 생각에 따르기로 했다.

중국으로 떠날 상선이 준비되었고 보게와 장춘은 무사귀환을 약속하며 야속한 이별을 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만장사를 찾은 보게는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다.

‘비록 가난하기는 하였으나 우리 모지는 한 번도 남의 재물을 훔친 일이 없고, 아무리 작은 목숨이라도 무턱대고 산목숨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부디 부처님께서 도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불행히도 배가 떠나던 그날 저녁부터 모진 강풍이 불며 폭우가 쏟아져 온 천지가 이수라장이 되었다. 바다에 나갔던 배는 한척도 돌아오지 못하였음은 물론이다. 물에서는 모두가 죽은 것이라 여기고 제사를 지

냈다. 하지만 보게만은 죄 없는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틀림 없이 살아 올 것이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남들처럼 죽었다고 제사 지내는 대신 평상시와 같이 일하면서 흔들림 없는 기도만 하였다.

장춘이 뒀던 배 또한 파선되었으나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그는 다행히 판자에 몸을 의지한 채 며칠간 표류하다가 어떤 섬에 도달하였고 구조되었다. 목숨을 구제하여 다행이었지만 자신을 걱정하고 계실 어머니에게 돌아갈 방도를 찾을 수가 없어 걱정이 앞섰다. 당장은 방도가 없기에 어느 부잣집에 고용되어 밭갈이 등 잡역을 하게 되었다. 그러기를 어느 날 장춘의 꿈에 만장사절의 부처님이 보였다. 잠에서 깬 장춘은 너무 또렷한 꿈이 기이하여 염불을 하며 일을 하게 되었다.

때마침 중국에 왔다가 고국으로 가는 신라의 큰스님이 장춘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밭을 가는 농부가 고국말로 염불하기에 놀라 밭걸음을 멈추고 장춘을 불러 물어보게 되었다. 장춘은 자초지종을 스님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장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스님은 모두다 관세음보살님을 지극 정성으로 섬긴 공덕이라며 칭찬하여 집주인을 찾아가 장춘의 사정 이야기를 알렸다. 말이 통하지 않아 그저 일을 주는 것이 최선이었던 주인은 장춘을 가상히 여기고 적지 않은 재물을 주었다. 장춘은 큰 스님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고국에 돌아온 장춘은 어머니를 모시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다.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입니다. 여기에 더해진 보게와 장춘의 부동심不動心은 근본이 불심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부정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늘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보게 여인의 정근에서 비롯된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그 마음에 공덕이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기도정진하면서 보이는 것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마장들에 이끌려 그것들을 범문이랍시고 호들갑떨며 기도의 본질을 흐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렸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다시 자리 잡고 정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정진에 들어 갈 수 있는 힘은 기도생활을 통해 선업을 쌓고 선근을 심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든, 소원성취를 위해서 하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하든, 성불하기 위해서 하든, 어떤 기도든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신감과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얻어진 힘이 바로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 더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회향할 수 있는 보살심이 됩니다. 무량한 보살심에 흔들림 없는 정진은 필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루하루의 기도를 통해 많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시간을 선물합니다

지현 전수
자석사 전수

시간을 선물합니다

- 신달자

막 낳은 달걀 같은 알의 시간
새해라는 따뜻한 이름을 선물합니다.
사람이 아닌 신의 이름으로 축복의 햇살이 널리 퍼지는
금물결 일렁이는 새해라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에게도
고루고루 주어지는 신의 선물
당신에게 새해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그 시간 안에는 우주가 넘실거리고
그 시간 안에는 아침과 밤이 출렁거리고
그 시간 안에는 사람과 나무와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이 피어납니다.

당신이 피어날 때
날마다 당신의 아침은 새해가 되고
날마다 당신의 밤은 시간이 됩니다.

숨결 들리고 노래가 들리고 축가가 울려퍼지고
당신은 드디어 생명의 열매로 충만 합니다.

날마다 당신은 충만합니다.

당신이야!

진정으로 그런 새해가 되기를!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늘 가슴 한 켠에 아릿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누군가와 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순간들이 빼곡히 적힌 달력이 달랑 한 장 남았음을 볼
때 한 해의 삶이 어딘가로 슬쩍 새어버린 듯한 아쉬움과 허전함이 때
로 먹먹해지기까지 하는 기분은 누구나 한 번쯤은 느꼈을 감정이리라.
하지만 마지막은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설렘과
기대 가득한 선물을 안겨 주기도 한다.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게 누구에게나 골고루 똑같은 시간이라는 선
물을 들고 새해는 열린다.

찰나의 순간, 묵은해가 새해가 되고 어둠을 걷은 일출의 장엄함에 눈
이 부시고 마음이 뜨거워진다.

어제까지의 근심이 오늘의 희망이 될 수 있기에 가슴 먹먹하게 만들
었던 한 해의 마지막은 의욕 충만한 용기로 삶을 새롭게 한다.

우린 또 이렇게 아무런 분별없이 공평하게 받아든 '새해'라는 선물
을 안고 좀 더 가벼이 살 일이다.

모든 무겁고 고단한 생각은 내려놓을 일이다.

선물 상자를 열 듯 주어진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순
간순간 최선을 다해 행복한 삶을 피워낼 일이다.

새해엔 그리 살아볼 일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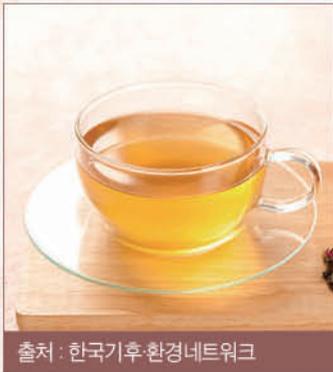
계절에 어울리며 계절 따라 마시기 좋은 차 2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황금가지차

겨우살이차라고도 불리는 차로 다른 나무에 기생하여 살아가며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띠며 가지가 둥근 형태의 식물입니다. 그 중 열매가 적색으로 익는 것은 붉은 겨우살이라 하고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잘 자라며 예로부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장수와 행운을 가질 수 있고 이를 말리면 가지가 황금색으로 변한다 하여 황금가지라고 불



출처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리고 있습니다.

황금가지를 겨울에서 이른 봄 사이에 채취해 적당한 크기로 잘라 그늘에 말려 찌고 뒤음을 반복해서 차로 만듭니다. 황금가지차는 노르스름한 빛깔을 띠고 담백하면서 구수한 풍미를 지닌 차로 움츠리기 쉬운 겨울철 몸을 보호하기에 좋습니다. 차를 90도 정도 뜨거운 물에 1~2스푼 넣어서 5분정도 우려면 형태가 그대로 살아나면서 연한 갈색의 빛깔이 우러납니다.

차의 성질은 독성이 없으며 모든 체질의 사람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당뇨와 고혈압, 이뇨작용에도 좋으며 최근에는 겨우살이 추출물을 천연 항암치료제에 쓰이고 있습니다.

도라지차

건조한 날씨에 칼칼한 목을 보호해주는 도라지차는 세종 때 향약에 관한 의학서인 『향약집성방』에 맛이 맵고 온화하고 햇빛에 말린 뿌리는 인후통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잘 자라는 도라지는 사계절 다 먹어도 좋지만 가을에서 이른 봄까지 캐낸 것이 제일 좋아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는 지금이 좋으며 다만 이 시기는 쓴맛이 강합니다. 도라지의 효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씻어 영양소가 잘 빠져나오도록 단면이 넓게 어슷썰기 하여 말리면 도움이 됩니다. 차는 90도 뜨거운 물에



출처 : 제너드 블로그

3분정도 우려 낸 다음 차만 걸러 낸 후 마시거나 기호에 따라 도라지의 쓴맛을 감초나 대추의 단맛이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같이 끓여 드시면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라지를 차로 만들 때는 중국산보다는 향이 강하고 진한 맛을 내는 국산을 사용하길 권합니다. 도라지 뿌리에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많아 기침과 가래에 효능이 있고 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약재로 쓰여 졌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걱정되는 요즘 목이 칼칼하다면 우리 도라지로 만든 차로 호흡기질환개선과 감기예방을 위해 마셔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도라지는 따뜻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 손발이 찬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나 몸이 뜨거운 사람이 과다 섭취한 경우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라지는 사포닌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돼지고기와 굴과는 궁합이 안 맞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메밀차

메밀은 중국에서 1000년 전부터 재배 되어온 작물로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가 없고 의술서인 『본초강목』에서는 '메밀이 위를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정신을 맑게 하며 오장의 찌꺼기를 없애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메밀 중에서도 우리나라 강원



출처: 제너드 블로그

도 평창에서는 몸에 좋은 루틴 성분이 일반 메밀보다 60~70배 훨씬 더 많은 몽고지방 타타리 메밀을 들러와 재배하여 그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차를 만들기 위해 질 좋은 메밀을 구입하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 말린 후 색깔이 살짝 변할 정도로 볶으면 됩니다. 단 메밀을 태우게 되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태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메밀차를 마실 때는 90도의 뜨거운 물에 차를 2스푼 정도 넣고 3~4분 우려낸 후 마시면 특유의 구수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 차갑게 해서 음료수 대용으로 마셔도 좋습니다. 노란색의 메밀차에는 황산화 작용을 하는 루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루틴은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몸에 더욱 좋아 겨울과일인 밀감과 함께 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루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혈압과 혈당 수치를 낮추어 주는 작용을 해서 당뇨병과 고혈압 예방에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체내 열을 식혀주는 작용을 하고 배변을 용이하게 만들며 저칼로리 식품으로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밀차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몸이 냉한 사람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은 많이 먹는 것을 피해야 하고 돼지고기나 양고기와 함께 먹으면 탈모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겨울은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물어 무수한 생각들이 증식하여 생각 속에서 멎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모든 일상 속 여러 감정이 오갈 때 차를 함께 한다면 적절하게 소란스럽고 즐겁게 살아 갈수 있을 것입니다. ♣

팔순을 맞이한 어머니께!

조나현
총지사 교도

팔순을 맞이한 어머니께!

어머님을 생각하면 신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
어머님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말 무심하고 못난 아들에 진정 소중하고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이래라 저래라는 말씀 없는 '너는 할 수 있어'라는 한없는 믿음을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 낼 수 있도록 해주신 멋진 교육자이십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행동으로
삶의 도리와 원리를 실천해 보이고,

현신하시는 솔선수범의 부드러운 지도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아들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온화한 미소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대화와 소통으로 격려해 주시는 다정한 친구이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건강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저희들 곁을 지켜주시는 어머니가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평원할 것 같았던 청춘도 우정도 시들해지지만
늘 한결같은 어머니의 사랑이 고맙고 소중합니다.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우리엄마'라는 진리를 절절히 느끼며 우리엄마!
사랑합니다!

- 아들 올림

사랑하는 어머니께!

오늘은 만가지가 많은 날... 엄마의 여든 번째 생신...
밤새 뒤척이며 지난 세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다.

어릴 적 저에게 너무 이쁘고 온화한 엄마라서 길 가다가도 '우리엄마예요'라고 자랑하고 싶었고,
학교 다닐 때 역시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엄마가 학교 오시는 날을
늘 기다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했고,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늘 따뜻했던 우리 집은 엄마의 노고와 정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떠나시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엄마가 되고부터
엄마로서의 내 모습은 엄마가 모델이라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삶에 엄마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자식들의 삶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루하루 느끼고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삶에 허둥대느라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시간과 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늘 죄송하고 아픕니다.

강하고 씩씩한 모습이야만 버틸 수 있었던 지난 20년이었기에 이제는 그런 내 모습을
스스로도 나임을 받아들여야 하고, 문득 떠올리는 약하고 여리기만 했던 어린 시절은
가슴 한켠 그리움으로만 두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그리움은 온통 엄마와 아빠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든 번째 엄마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하고 아름다웠던 엄마의 지난 세월을 존경합니다.

행복한 마음만 담고 걱정과 시름은 놓아 버릴 오늘을 부탁드립니다.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

- 딸 올림

엄마와 딸들의 일본여행

- 그곳에서 밀교를

여순애
자석사 교도



지금껏 엄마와 계획을 잡고 여행을 가본적은 없는 것 같다. 엄마의 연세가 많다고 할 수 있는 나이 이신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건강의 척도가 연세가 되는 것 아닐까!

엄마와 딸들, 이렇게 집안 친척들 15명이 함께 일본 여행길에 올랐다. 좋은 계획이어서 일까? 아님 엄마의 부처님이 돌보아 주신걸까? 날씨가 너무 좋았다. 어르신들은 추우면 힘들어 하시는데...

그리고 가을의 아름다움인 단풍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온천도 하고 밀교사원 동장사에 가보고 신사 텐만궁도 봤는데 엄마가 좋아하시니 더 뜻 깊었다.

벳부 온천, 동장사, 텐만궁에서 엄마와 함께 보낸 이야길 쓰려한다.

일본의 온천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 한다. 요즘은 남성 중심의 온천에서 여성 중심의 온천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 한다. 그 중 벳부 온천은 유

명세처럼 물이 좋았다. 노천탕 가는 길에서 옛 화려했던 온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엄마는 유독 온천을 좋아하신다. 물을 좋아하셔서 내가 '인어공주란 별명을 지었다. 벳부 온천에 다시 오고 싶다는데 꼭 같이 오고 싶다.

'동정사가 밀교 사원이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마는 날아가실 듯 기뻐하셨다. 동정사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승인 공해(홍법대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밀교를 배워온 후 세운 사찰이다. 우리 사원과 비슷한 외부와 오륜탑을 볼 수 있었다. 엄마와 난 오륜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동정사 안을 다 돌아보고서야 발걸음을 돌리시는 엄마의 지극한 불심을 볼 수 있었다.

텐만궁은 백제의 후손이며 학문의 신이라 불리는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모신 곳이다. 일요일이라 신사 안엔 많은 사람으로 부쩍 거렸다.

일본에서는 아이가 3살, 5살, 7살이 되면 신사에 와서 축원기도를 한다고 한다. 아이들이 기모노를 입고 있었는데 너무나 이뻐서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였다. TV에서만 보던 신사 참배의식을 멀리서 보아야 하는 것에 엄마는 안타까워 하셨다. 불교의식과 어떻게 다른지 가까이서 보고 싶었으나 보다. 2박 3일의 여행으로 일본을 알기는 너무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이번 여행은 엄마와 함께한 시간들이다. 엄마의 시각이 투영된 여행이었다. 다음에 엄마랑 또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엄마 힘내세요. 다음에 또 같이 여행갈 수 있도록.....'

다른 엄마들도 여행의 즐거움보다는 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한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노년의 엄마와 여행을 해보라고.....

엄마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보여질 것이다. ♪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3)

우연
자석사 교도



만달레이는 미얀마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 쁘바웅 왕조의 수도였다. 지금은 양곤 다음가는 제2의 도시다.

잠에서 눈을 뜨니 시간은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난 밤 10시간 동안 심야버스를 타고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점심은 한국식당을 찾아가기로 했다. 우리나라 음식을 먹어야 없던 힘이 생겨 날 것이라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맞장구를 쳤다. 한국식당은 택시 기사님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식사는 돼지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시켰다. 여행을 시작한지 10일 만에 처음 먹어 보는 한국 음식이었다. 2%의 부족감은 있었으나 그래도 먹고 나니 살 것만 같았다.

점심을 끝내고 곧바로 만달레이 왕궁을 찾았다. 먼저 눈에 들어 온 것은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해자였다. 1857년 민돈 왕은 영국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자 쇠락해 가는 쁘바웅 왕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옛 왕궁 아마라푸라에서 이곳으로 옮겨 왔다는 것이다. 왕궁 내부를 둘러보았다. 텅 빈 홀에는 밀랍 인형으로 만든 민돈 왕과 왕비만이 덩그렇게 놓여 있었다. 과거의 왕궁은 면적이 125만평, 건물이 114개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했다고 하나 지금은 어디에도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부귀영화의 무상함을 보는 듯 했다.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다 불탄 왕궁의 기둥이 전시 된 곳이 눈에 들어 왔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하고 있다가 퇴각하면서 불을 질러 왕궁이 잿더미가 된 불행한 미얀마의 역사를 말 해 주고 있었다. 일본 침략의 흔적은 태국에 이어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왕궁을 나와 만달레이 언덕에 올랐다. 해발 240미터 정상에 세워진 수따웅피아이 파고다에서 바라보니 왕궁은 발아래에 놓여 있고 도시의 전경과 사방의 넓은 평야가 한 눈에 들어 왔다. 만달레이의 이름이 '넓은 평원'을 의미 한다고 하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전설에 의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이곳에 와서 2400년 후 언덕의 남쪽에 위대한 도시가 생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민돈왕이 아마라푸라에서 만달레이로 천도를 한 것이 이러한 부처님의 예언을 믿었던 것은 아닐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녁은 점심을 먹었던 한국식당에서 먹기로 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한 여자아이가 서툰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 아이는 식당 사장의 딸이었다. 아버지는 한국사

람, 어머니는 미얀마 사람이며 아버지는 한국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고 지금은 안 계신다고 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을 것만 같았다. 우리는 점심에서 먹었던 것과 같이 돼지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시켰고 준비해 간 소주와 미얀마 맥주를 섞어 마셨다. 밤이 늦어서야 식당을 나왔다. 한참을 걸어오다 뒤돌아보니 형광등 불빛에 흔들리는 코리아 하우스 간판이 육지 속의 섬처럼 남겨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서둘러 미얀마 최대 수도원인 마하간다용을 찾았다. 오전 10시경이 되자 수많은 스님들이 수도원 사이로 난 길 양쪽으로 아침 탁발공양 행렬이 시작되었다. 맨발인채 발우^鉢를 가슴에 안고 지나가는 침묵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를 않았다.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수많은 관광객과 불자들이 몰려들었고 지나가는 스님의 발우에 돈이나 과자 등을 넣거나 기념사진을 찍느라 야단법석이었다. 나도 그 사이를 놓칠세라 나이가 앓되어 보이는 스님의 발우에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돈을 넣었다. 나의 행동이 스님을 향한 존경심이었는지 아니면, 어린 스님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였는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스님의 표정은 나보다 더 어른스럽고 의젓해 보였다.

마하무니 파고다는 미얀마 불교 3대 성지 중 한곳이다. 마하무니 파고다는 만달레이 시내에서 아마라푸라(우베인) 가는 길에 있었다. 미얀마 사람들은 마하무니 불상이 부처님 생전의 모습이라고 했다.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왔을 때 왕의 간절한 부탁으로 불상을 허락했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다. 불상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500년이 지나고서야 생겨났다고 알고 있었던 그 동안의 사실이 어리둥절하게 했다. 통로에는 마하무니 불상에 금박을 붙이고자 줄을 서서 차례



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혼잡스러웠다. 금박의 두께가 무려 12톤이나 된다고 했다. 조명 불빛을 받아 금빛 찬란한 불상은 욕심으로 가득 찬 두꺼비의 형상으로 보였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웬지 애잔하게 다가왔다. 부처님은 중생에게 탐진치^{貪嗔痴} 삼독을 멀리하라고 가르쳤으나 인간의 탐욕이 부처님의 모습마저 바꾸어 버린 것 같아 씁쓰레 한 마음을 지을 수가 없었다.

행선지를 바꾸어 잉와로 갔다. 현지에서는 아바라고 부르기도 했다. 1841년 대지진으로 아마라푸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는 잉와 왕조의 수도였다. 나루터에서 보트를 타고 십 분 정도 걸려 반대편 선착장에 도착하니 한 무리의 마차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차는 좌, 우로 논과 밭, 야지수림이 이어지는 평범한 시골길을 달렸다. 도로 옆에는 잡풀 속에 기둥만 덩그렇게 남아 있는 파고다가 나타났고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불상들이 지나갔다.



마차가 멈춘 곳은 1834년에 지어졌고 왕실 수도원으로 사용되었다는 바가야 짜웅 사원이었다. 양철 지붕을 제외하고는 모두 티크 목재로 지어졌다고 한다. 벽과 기둥 건물 곳곳에는 화려하고도 예술성이 높은 고대 조각물이 새겨져 있었다. 지금도 어린 사미승들과 동네 아이들의 학교로 이용된다고 한다. 다시 마차가 한 참을 달리자 저 멀리 빼딱하게 서 있는 건축물이 시야에 들어 왔다. 옛 왕성의 흔적이라고 하는 난민망루였다. 1838년 지진으로 기울여졌다고 했다. 주변에는 무너진 벽돌 더미가 늘려져 있었고 그사이로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어디선가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 하여 주노라~” 황성옛터의 옛 노래가 들려오는 듯 했다.

돌아오는 길에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우베인 다리로 향했다. 다리 위에서 호수 너머로 저물어 가는 석양의 장관을 보기 위하여 가는 길을

재촉했다. 도착하니 다리 주변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어수선한 주변과, 특별히 시선을 끌지 못하는 상점, 음식점 앞으로 사람들은 먼지를 날리며 무심코 지나갔다. 아직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과는 거리가 먼 듯 했다.

우베인 다리는 타웅타만 호수를 가로지르는 1.2킬로미터 길이와 1,086개의 티크 목재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다리 첫 머리를 피하여 소형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아갔다. 우기로 물이 불어난 호수는 바람과 파도로 출렁거렸고 해거름의 호수 위에서 나는 또 다른 산타루치아 노래를 불렀다. 다리 중간지점 선착장으로 난 계단을 따라 올라서니 확 트인 시야로 다리는 길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곧 나타날 일몰의 장관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걷고 있었다. 호수를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사진에 담고 있는 사람, 다리에 걸터앉아 저 멀리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긴 사람들, 제각기의 모습이 그림처럼 다가왔다.

1850년 당시 아마라뿌라 시장이었던 우베인이 호수를 멀리 돌아서 탁발하는 스님들과 마을사람들을 위하여 다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160여 년 전 한 지도자의 선정[#]이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어 가난한 후세 사람들에게 귀중한 관광수입원을 만들어 준 것이다.

끝내 일몰의 장관은 구름에 가려 나타나지를 않았다. 다리 위의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떠나지를 못하고 남아 서성거렸다. 우리는 다음 여정을 위하여 저녁노을 뒤로 멀어져가는 우베인 브릿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

바로 여기 있네!

법일 정사
벽룡사 주교



한 스님이 주말에도 정신없이 행정 업무를 보고 있었다.
간 만에 오랜 친구인 도반이 왔다. 하지만 스님은 일하느라
너무 바빴다.

미안해서 스님이 말했다.

“다 돼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주게.”

친구 스님이 재치있게 물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딘가?”

허둥대던 스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네가 날 구해주었네. 이렇게 허둥대다 보면 내가 곧 가게
될 곳은 오로지 황천뿐이겠군.”



돌이켜 보자. 나는 가기만 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럼 언제 도착하는 거야?”

반문해보자.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가!

그렇다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다. ♣



만다라

曼 茶 羅

曼 길게 끌-만 茶 차-다
羅 벌일-라

어원적으로 보면, 범어 mandala는 ‘만다^{manda}’라는 어근과 ‘라^{ra}’라는 접미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만다’는 마음의 진수^{眞髓} 또는 본질이라는 뜻이다. ‘라’는 소유 또는 성취를 의미한다. 이들의 의미를 결합하면 만다라는 ‘마음속에 참을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

만다라는 고대인도의 제사의식에서 제단^{祭壇, vedi}을 세우고 거기에 신들을 초청하여 공양물을 올리고, 진언^{眞言, mantra}을 외우는 것에 의하여 갖가지의 바람을 기원했던 것에 연원이 있다.

밀교에서도, 그 초기단계(5~6세기) 때부터 토단^{土壇}을 설치하고 단상에 본존상을 안치하거나, 혹은 존형^{尊形}을 그림으로 그리는 등으로 기원을 성취하는 수법^{修法}을 펼쳤었다. 맨 처음에는 병의 평안한 치유라든가, 풍작을 기원하는 등의 양재초복^{養災招福}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윽고 성불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화했으며, 제단도 복잡하게 변화였다. 밀교에서는 그 단^壇을 만다라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수법^{修法}을 펼칠 때마다 단을 쌓았다가 부서버렸는데, 이에 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화포^{畫布}에 제존^{諸尊}의 모습을 그리게끔 된 연유로, 상설^{常設}하는 단을 만들어서 수법에 따라서 그 화포를 깔거나[부만다라^{佛曼荼羅}], 또는 단앞쪽에 걸었다[괘만다라^{掛曼荼羅}, 혹은 괘불만다라^{掛佛曼荼羅}]. 그리고, 그 화포에 그려진 제존의 집합도를 만다라라고 칭하게끔 된 것이다. 이런 만다라를 대표하기도 하며 또한 총합적인 것이 태장^{胎藏}·금강^{金剛}의 양부만다라^{兩部曼荼羅}이다.

투치는 만다라에 관하여 ‘의식분해^{意識分解}와 의식재통합^{意識再統合}의 상징표상’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도인의 종교적 의식전환체험이 회화형식으로 표현된 것이 만다라이다. 만다라에는 당연히 보리심 혹은 시바^{Siva}라고 지칭되는 내재하는 빛의 의식이 전개된다.

윤은 만다라를 ‘개성화 과정의 그림’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모든 만다라가 완전한 개성화의 표현은 아니더라도, 인간이 자기실현의 성취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심리적으로 치유하려는 동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리암은 만다라를 ‘시각과정으로서의 예술형식’이라고 정의했다. 미리암은 만다라의 조화성에 주목하여 예술형식의 특색을 부각시켰다. 그의 논리에서 조화의 법칙은 인간의 제한성과 초월성을 함께 결합시켜 주는 송신작용을 하게 된다. 아울러 만다라를 통해 시공^{時空}의 경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유한성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시원성^{始源性}과 중심성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미적 영원성을 통찰하게 한다. ♪

남귤북지

南 橘 北 枳

南 남녘-남	橘 귤-귤
北 북녘-북	枳 탕자-지

남쪽 땅의 귤나무를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탕자 나무로 변한다는 뜻으로,

사람도 그 처해 있는 곳에 따라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됨을 이르는 말

사람은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심성을 갖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안 되고, 먹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맹자 어머니께서 이사를 세 번이나 한 것도 이런 세상 이치 때문입니다.

전국시대 제나라에 안영이란 유명한 재상이 있었다. 안영의 이름을 들은 초나라의 임금 은 자기 나라에 그를 초청했다. 온 천하 사람이 칭찬하는 안영을 놀려 주면서 초나라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

초나라의 임금은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기가 바쁘게 한 죄인을 불러 놓고 말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제나라 출신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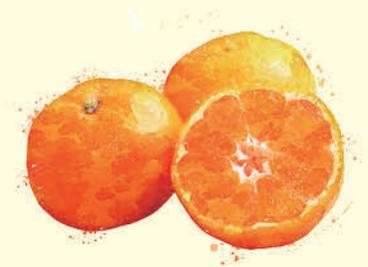
이 말을 들은 초나라 임금은 안영을 보고 말했다.

“제나라 사람은 원래 도둑질을 잘 하는 모양이군요.”

그러자, 안영은 태연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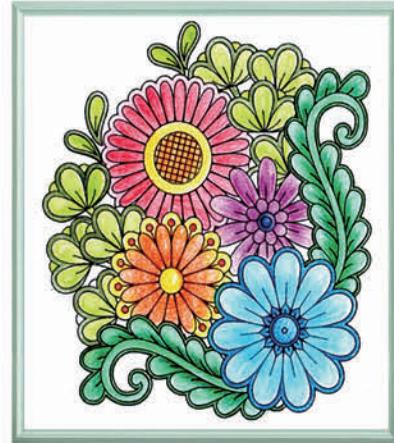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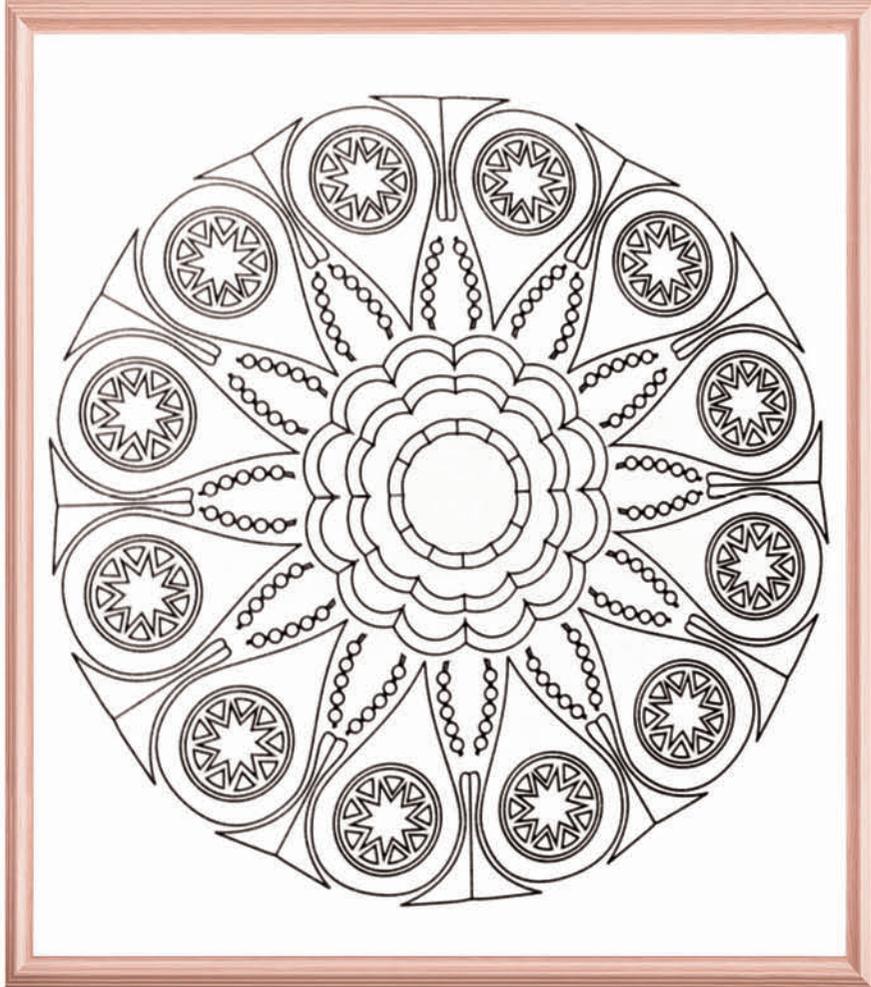
“강남 쪽의 귤을 강북 쪽으로 옮기면 탕자가 되고 마는 것은 토질 때문입니다. 저 제나라 사람이 제나라에 있을 때는 도둑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초나라로 와서 도둑질을 한 것을 보면 초나라의 풍토가 좋지 않은가 하옵니다.”

초나라 왕의 코가 납작해진 것은 물론이고 안영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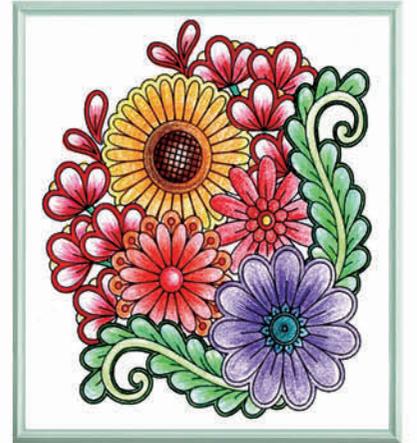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지난 호 독자 솜씨



▲ 울산 김소영 님



▲ 양산 이정희 님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자님의 사연을 모읍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민두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욱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미영	한영희	허지웅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48(2019)년 1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2019.
1.22 — 24.
(2박 3일)

제5회
청소년 바른 인성
형성 프로그램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한 마음 겨울캠프

참된 나를 찾는 여행



대상

나를 찾는 여행 참가자 전원

장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

내용

여행후기발표, 인성강의, 문화체험

개별 참가문의

각사원주교 및 행사접수처로 문의
☎ 02-552-1080~3

주최 불교총지중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1월호



참회는 수행의 첫걸음이다
지극한 참회를 통하여
우선 마음 그릇을 깨끗이 하라
더러운 통에 물을 붓는다고
깨끗한 물이 되겠는가

- 환당 대증사 -